



#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1/19 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seokhwan.kim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VOTERS

Board



**아드리아나 쿠글러**  
이사

(9/7) 임기는 2026년 1월 31일 까지. 세계은행과 노동부에서 미국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.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및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



**마이클 바**  
부의장

(1/9) 은행 자본 규제인 '바젤 III' 주요 부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 중. 지난 해 3월 은행 위기 동안 시행된 대출프로그램(BTFP) 연장 가능성 낮아.



**리사 쿡**  
이사

(11/16)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'연착륙'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아. 양면의 위험 있기 때문에 '균형'이 중요



**필립 제퍼슨**  
부의장

(11/14)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유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 취할 수도



**제롬 파월**  
의장

(12/13) 최고 금리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. 이전 금리인상의 긴축 효과 나타날 것. 추가 금리인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금리인하 논의가 더 적절.



**크리스토퍼 월러**  
이사

(1/16) 금리 인하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과거처럼 빨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. 과도한 긴축을 피하기 위해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.



**미셸 보우먼**  
이사

(1/17) 은행 자본 요건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. 이에 대한 합리적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.

NONVOTERS

FRB

Alternate



**라파엘 보스틱**  
애틀랜타

(1/18)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는 확실한 증거 있다면 7월 이전 금리인하 시작할 가능성 있어. 기본은 3분기부터 연내 50bp 인하.



**메리 델리**  
샌프란시스코

(12/19)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이 12월 SEP와 거의 비슷. 내년 3번 금리 인하 하더라도 상당한 제한적일 것. 노동시장에 적은 혼란 주면서 목표 달성해야.



**토마스 바킨**  
리치몬드

(1/11) 12월 CPI는 예상했던 것과 비슷. 인플레이션이 2% 궤도에 오르면 금리를 낮출 수 있어.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.



**존 윌리엄스**  
뉴욕

(1/10)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 있어. 은행의 유동성 수준이 양적긴축(QT) 속도를 둔화해야 한다는 신호 아냐.



**로레타 메스터**  
클리블랜드

(1/11) 아직 금리 인하할 수준 아냐.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. 3월은 너무 일러. 올해 양적긴축(QT) 둔화와 관련해 논의가 시작될 것.

※ 24년 6월 말, 퇴임 예정



**오스탄 굴스비**  
시카고

(1/11) 2023년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있어 의미있는 한 해. 연준은 여전히 황금의 길에 있지만, 주택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공급 충격 등의 위험도 있어.



**패트릭 하커**  
필라델피아

(12/20) 금리인하 중요하지만 너무 빨리 할 필요도, 당장 해야 할 이유도 없어. 미국 경제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. 연착륙 가능성 높지만, 쉽지 않은 것.



**수잔 콜린스**  
보스턴

(11/17) 데이터는 너무 혼재되어 있고 우리가 본 진행 상황은 상당히 고르지 않아.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갈 길 멀어.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.



**로리 K. 로건**  
델러스

(11/7) 인플레이션 수치는 2%가 아닌 3%를 향해 추세를 보이고 있어.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연준은 그러한 기대 충족시켜야



**제프리 슈미트**  
캔자스시티

(8/2) 오는 8월 21일부터 10년 동안의 임기 시작. 그는 FDIC 경력을 포함해 40년 이상 은행 및 규제 관련 경험 보유. 오마하 뮤추얼 은행 설립 및 CEO 역임



**닐 카시카리**  
미니애폴리스

(11/7)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연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아.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제 활동은 우리가 충분히 했는지 의문.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조치 취할 것



**캐서린 오닐 페이즈**  
세인트루이스(8.15~ 임시)

NONVOTERS

※ 직무대행